

계엄사태 속 '정치적 존재감' 키우는 김영록 지사

'12·3' 이후 SNS에 11차례 尹·내란 세력 집중 비판 조기대선 정치적 역할 의지 담은 시그널 해석 많아 김지사 "정국 예의주시·여론 경청 '정치로드맵' 숙고"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김영록 전남지사가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한달여 동안 SNS를 통해 총 11차례에 걸쳐 윤석열 대통령과 여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내며 '정치적 존재감'을 키우고 있다.

그동안 김 지사가 호남 정치 복원의 중요성을 강조해왔던 만큼 향후 탄핵 정국과 조기 대선 국면에서 일정 부분 정치적 역할을 하겠다는 의지를 담은 '시그널'이라는 분석이 적지 않아 향후 행보에 관심이 모아진다.

김영록 지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올린 '선한 영향력 vs 악한 영향력'이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선한 영향력은 더

키우고 못된 뿌리는 빠르게 제거해야 전체가 잘 살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6천여명의 자원봉사자, 30만5천명의 추모객, 68억원의 성금과 25억원의 지자체 기부금 등 이 모든 선한 마음들이 유가족의 슬픔을 위로하고 국가적 아픔을 치유하는 데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김 지사는 "반면 전남등에서는 합법적인 체포영장 집행에 불법 저항하는 대통령의 내란행위를 보란듯 옹호하는 정치인들의 모습이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 부끄럽고 또 부끄러웠다"며 "자신의 입장에 따라 법 집행도 무력화시킬 수 있다는 위험한 생각과 영향



력이 더 커지고 사회에 큰 해악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 지사는 지난 3일 공수처의 윤 대통령 1차 체포영장 집행 실패 직후 "국민을 배반한 내란수와 윤석열은 즉각 체포영장 집행에 응하라"며 "잔당 추종세력들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고 체

포영장 집행에 즉각 협조하라. 이것이 시대와 국민의 명령"이라고 비판했다.

김 지사는 또 지난해 12월30일엔 국민 의원 박수영 국회의원을 향해 "비극적인 여객기 참사 앞에서 졸탄핵 운운하는 망발을 하시느냐. 국민을 농락하는 악어의 눈물로, 황망한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이용하는 저급한 행위를 제발 멈춰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고 직격했다.

이와 함께 '윤석열 아바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쿠데타 세력을 비호하는 내란대행임을 자인하고 있다. 헌법과 법률에 명시된 헌법재판관 임명 의무를 거부하고 반헌법적 계보를 늘어놓고 있다' (12월27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 거부는 위헌이고 위법이다' (12월26일), '가결 204표! 가슴을 쓸어내렸다. 무도한 반헌법·반민주 폭거를 드디어 멈춰 세웠다. 삶에는 추위에도 씀씀이 탄핵을 외친 국민들의 승리다' (12월14일), '(윤 대통령

을) 즉시 체포해야 한다. 대통령 담화를 보니 한심하고 참담하다. 일부 보수 유튜버 주장을 방패삼아 국민을 오도하려는 반헌법적 변명에 불과하다' (12월12일)는 글도 올리기도 했다.

이 같은 김 지사의 'SNS 정치'가 본격화한 것은 비상계엄 사태 직후인 12월4일이다. 당시 그는 "비상계엄 조치는 당혹스럽고 참담하기 그지 않다. 민주주의가 참혹했던 1980년 그 이전, 군사정권 시절로 후퇴했다"며 "헌법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비상계엄은 즉시 철회되어야 한다. 국민들의 피와 땀으로 만들어진 대한민국과 민주주의를 우리 손으로 지켜야 한다"고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다.

불과 1개월 남짓한 기간 동안 김 지사는 11차례 윤 대통령·비상계엄·내란·국민의힘에 대한 비판을 주제로 의견을 쏟아냈다.

이처럼 김 지사가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대통령과 비호 세력에 대해 접미한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것을 놓고 지

역 평가에서는 정치적 포석이 깔린 행보라는 해석이 주를 이룬다.

앞으로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민주당 내 호남 주자가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김 지사가 '호남의 목소리'를 결집하는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라는 시각도 적지 않다.

이와 관련, 김영록 지사는 최근 광주매일신문과의 신년인터뷰에서 "국민주권을 찬탈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하려 한 반국가·반헌법·반민주 폭거행위에 대한 비판은 삶에 추위에도 민주주의에 대한 간절함 하나로 거리에 모였던 국민들의 마음을 대변한 것"이라며 "도민의 이익에 반하는 사황에 대해서는 적극 대응하는 것이 도지사로서 책무"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또 "현재 정치적 로드맵이 따로 있다기 보다는 정국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도민의 목소리를 경청하며 심사숙고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정기자

설맞이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최대 50% 할인

전남도, 예비비 1억 투입...500개사 2천400여개 상품

전남도는 9일 "사회적경제기업 제품 소비 촉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예비비 1억원을 긴급 투입해 '설 명절 특별 할인 프로모션'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모션은 온·오프라인 플랫폼에서 최대 50% 할인 기획전으로 진행한다. 500개 이상 사회적경제기업이 참여해 농수산물, 가공식품, 생활용품 등 2천400여개 상품을 판매한다.

온라인 행사의 경우 전남 사회적경제 소핑몰 '녹색나눔', 남도장터, 우체

국 소핑몰에서 오는 31일까지 매일 전 제품 40% 할인쿠폰을 선착순 제공하면 소비자는 제공받은 할인쿠폰을 이용해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오프라인 직거래 행사는 전남상사가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30개 기업 110개 제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롯데이마트 광주월드점점은 15개 기업 50개 제품을 합리적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한다.

전남도는 이번 행사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사회적 경제기업의 우수 상품을 널리 알리고

착한소비 문화를 확산할 계획이다.

김준철 전남도 일자리경제과장은 "장기화된 고물가·고금리로 민생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설을 맞게 됐다"며 "착한소비를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을 돕고 소비자 부담을 덜어줄 특별 할인 행사에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특별 할인행사 제품은 녹색나눔 누리집 (greenanum.co.kr), 남도장터 누리집 (jnmall.kr), 우체국 소핑몰 (mall.e-post.go.kr)에서 구매하거나 전남상사 사회적협동조합 (061-282-8600)을 통해 전화로 주문할 수 있다. /영사원기자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 명칭한 전남도 행정부지사가 9일 오전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주항공 여객기 사고 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전남도 제공>

국정협의회, 崔대행·우의장·권영세·이재명 4인 참여

각자 관심 의제 내부 논의 후 실무협상 재개기로

정부와 여야는 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우원식 국회의장,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참여하는 4인 체제의 '국정협의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여야정은 이날 국회에서 연 실무협의에서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회 김상훈·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이 밝혔다.

여야정은 각자 국정협의회에서 다룰 관심 의제를 꺼내놓았고 내부 논의를 거친 뒤 실무협의를 다시 열기로 했다.

여당은 민생 법안 처리, 야당은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등 논의를 주요 의제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실무협의에는 양당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국민의힘 강명구·민주당 이혜식 대표 비서실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조오섭 국회의장 비서실장 등이 참석했다. /김진수기자

항공참사 조사 독립성·유가족 소통 강화

김원이 '항공·철도사고조사법' 개정안 대표발의

지난해 12월 발생한 항공참사의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는 국토교통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의 구성을 두고 중립성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조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참사 유족들이 선출한 사람을 조사위에

참여시키도록 하는 개정안이 발의됐다.

항공·철도사고 조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를 현행 국토교통부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대통령

이 임명하며,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으로 임명해 위원회의 독립성·객관성을 강화한 것이 골자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김원이 의원(민주당 항공참사 피해가족지원단장)은 "국토부는 콘크리트 둔덕 관리 책임 등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며 "조사위의 독립성을 강화해 이해충돌 문제를 방지하고 유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면서 진상 규명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진수기자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봉사실천에 앞장서는 사람들

국제로타리는 1905년에 '초아의 봉사'를 모토로 창설된 최초의 봉사단체입니다. 전 세계 로타리 회원들은 높은 윤리적 기준을 실천하고 문해력 증진, 질병 퇴치, 기아 및 빈곤 감소, 안전한 식수 제공, 모자보건, 경제 및 지역사회 개발 등 인도주의 활동을 통해 세계이해와 평화증진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꿈꾸는 세상은 다 함께 힘을 모아
지구촌과 지역사회 그리고 우리 자신을 위한 지속력 있는 변화를 실천하는 그런 세상입니다**



국제로타리 3710지구 (광주, 전남서)
2024-25년도 총재
진화 백현옥

국제로타리 3710지구는 광주광역시와 전남 서부권 9개 시·군(화순, 나주, 담양, 장성, 영광, 함평, 무안, 목포, 신안)에 있는 90개 클럽을 관리하는 지구로 3,600명의 로타리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광주광역시 서구 대남대로 448(농성동)
TEL. 062-223-3710
FAX. 062-223-3738
E-mail. ri3710@hanmail.net